
 금융위원회	보도반박	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1.5.31(월)	
책 임 자	금융위 행정인사과장 선 욱(02-2100-2750)		담 당 자	변경홍 사무관(02-2100-2752)	
	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전요섭(02-2100-1720)			한필윤 사무관(02-2100-1736)	

**제 목 : 금융위는 행정안전부와 가상화폐 전담부서 신설을  
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황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.  
[아시아경제, 5.31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]**

## 1. 기사내용

- ☐ 아시아경제는 5월 31일 「금융위 가상화폐 전담조직, 일단 4명으로 시작」 제하의 기사에서,
- “금융위는 행정안전부와 금융정보분석원 산하에 가상화폐 전담 정식부서 신설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, 행안부에 정식 부서 신설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황이다.” 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☐ 금번 5월 28일 「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」 발표와 관련하여,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전담 정식부서 신설을 행안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,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